

인천의 터줏대감 주유소, 사이클셀프오일뱅크

다가오는 봄맞이를 시작한 2월 어느 날, 부천 송내역 근처에 자리 잡은 사이클셀프오일뱅크를 방문했다. 30여 년 동안 고속도로와 지하철역 근처에서 주유를 담당하며, 어느덧 인천을 대표하는 주유소가 된 사이클셀프오일뱅크를 소개한다.

글 홍보팀 사진 류창렬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주유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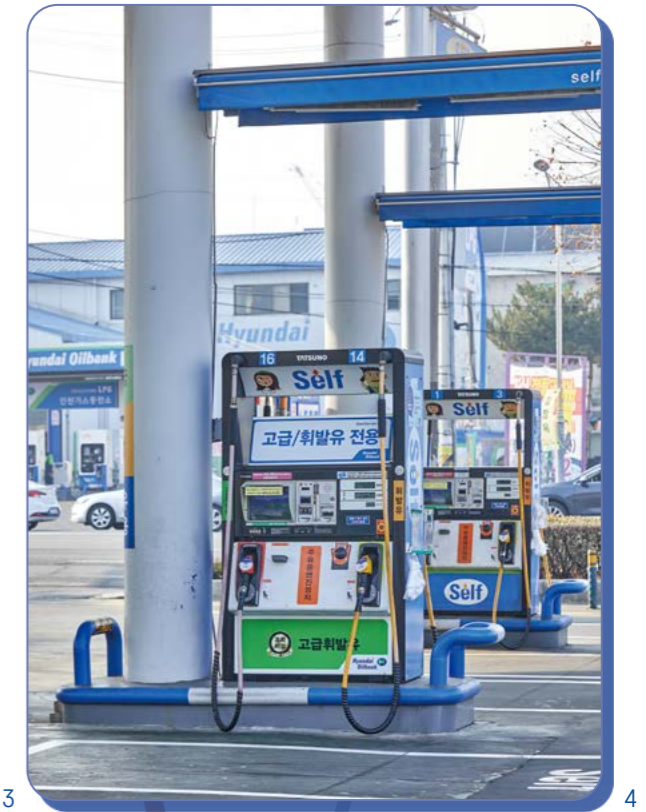
싸이클셀프오일뱅크는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다. 이는 고속도로와 지하철역 상권 근처에 위치해 이동 차량이 많기 때문이다. 취재를 위해 방문했을 때도, 넓은 공간이 가득 찰 정도로 많은 차량이 주유에 한창이었다. 이곳 주유소 심병곤 대표는 “교통 중심지라는 최적의 위치에 자리한 주유소라는 자부심이 있지만, 그만큼 고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차량이 집중되는 시간을 대비해서 틈틈이 더 청소가 필요한 부분이 없는지, 고객이 불편할 부분은 없는지 직접 살피는 심 대표의 사려 깊음은 쾌적한 주유소를 만드는 일등 공신이다.

랜드마크 주유소의 자부심으로

싸이클셀프오일뱅크는 30여 년이라는 긴 시간과 널찍한 주유 공간 및 부대시설을 자랑한다. 한곳에서 오래도록 자리를 지켜온 '인천의 랜드마크 주유소'라는 자부심은, 주유소를 잘 관리하고 다양한 편의 시설을 제공하는 노력에서 비롯한 근거 있는 자부심이다. 주유소는 작년 리모델링을 통해 내부 재정비를 마쳤고, 블루클린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작년 상반기에는 블루클린 우수사업장에 지정될 정도로 쾌적한 주유 환경에 진심이다. 탁 트인 주유소 바로 옆에 위치한 맥도날드 역시 운전자에게 활력을 주는 휴식처 역할을 톡톡히 한다. 심 대표는 “드라이브 스루(Drive Through)로 아침을 간단히 해결하며 출근하는 젊은 세대가 많아진 만큼, 두 공간이 서로 윈윈하고 있다”고 말한다.

세차 맛집 주유소가 되기까지

싸이클셀프오일뱅크의 장점을 묻자 심 대표는 망설임 없이 '세차 서비스'라고 답한다. 세차만을 위해 찾아오는 고객이 있을 정도로, 이곳 주유소는 세차 맛집으로 명성이 자자하다. 심 대표는 그 비결을 꼼꼼한 '후세차 서비스'라며, 이는 어느덧 3년을 함께해온 동료들 덕분이라며 공을 돌렸다. 동년배로 구성되어 공감대가 넓은 주유소 동료들은 눈빛만 봐도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챌 만큼 호흡이 척척 맞는 사이다. 소소한 일상생활부터 업무 공유까지 대화가 활발히 오가는 메신저 공간 '아싸방(아름다운 싸이클 방)'은 이곳의 돈독함을 잘 보여준다. 지금까지 달려온 열정과 헌신으로 앞으로도 인천을 대표하는 주유소로 남아주기를 기대한다.



- 1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싸이클셀프오일뱅크는 인천의 랜드마크 주유소다.
- 2 동년배로 구성되어 공감대가 넓은 주유소 동료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싸이클셀프오일뱅크.
- 3 고객에게 쾌적한 환경 제공을 목표로 열정과 헌신을 다하고 있는 심병곤 대표.
- 4 작년 상반기, 블루클린 우수사업장으로 지정될만큼 싸이클셀프오일뱅크는 쾌적하게 관리되고 있다.
- 5,6 꼼꼼한 후세차 서비스로 '세차 맛집'으로 불리는 싸이클셀프오일뱅크.

